6·25戰爭時 駐日美軍의 參戰決定과 韓半島 展開

南 廷 屋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 리 말
2. 미 극동군의 일부로서 주일미군의 군사력
3. 주일미군의 참전 배경과 결정과정
4. 주일미군의 전개와 작전활동
5. 맺 음 말 :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의 역할과 의의

1. 머 리 말

주일미군(駐日美軍)은 맥아더 원수(General of the Army)가 지휘하는 미 극동군(極東軍)의 일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일컫는다. 주일미군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 한지 불과 6일 만에 미국이 한국전선에 미 지상군 파병을 결정했을 때 한반도에 최초로 전개된 미군이기도 하다.

주일미군은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개전 초기에 전개되어 한국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한국의 위급한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주일미군은 7월 한 달간의 힘든 지연전을 통해 부산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미 본토 증원 병력이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는 전쟁기간 동안 미국이 취한 조치 중 가장 성공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주일미군은 개전초기부터 인천상륙작전 때까지 한국 전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4개 사단이 모두 출동했고, 미 해·공군도 영국 및 호주 등 유엔참전국과 합동으로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지상군 작전을 지원함은 물론 독자적인 해·공군작전을 전개하여 한국에서 유엔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6·25전쟁시 일본과 관계되는 논저(論著)의 주류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중에서 일본의 해상지원 및 소해활동 지원사항, 일본의 후방기지 역할, 일본의 재무장에 따른 재군비 정책에 관한 것인 반면[1] 개전초기 한반도 전개의 주요 역할을 했던 주일미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유석열, 「6·25전쟁과 일본」, 『6·25전쟁사』 5권(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3); 양영조, 「韓國戰爭과 日本의 役割」, 『軍史』 제27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3); 남기정, 「일본의 재군비와 기지국가론」,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①(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남균, 「미국의 일본 재무장정책」,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①(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田中恒夫, 「韓國戰爭時 日本의 對유엔군 陸上支援 活動」, 『6·25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한일국제학술세미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谷村文雄, 「韓國戰爭時 日本의 海上支援 活動」, 『6·25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한일국제학술세미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이종판, 「6·25전쟁시 일본의 후방지원」, 『軍史』 제46호(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이종판, 「6·25전쟁기 유엔에 대한 일본의 협력활동」, 『軍史』 제48호(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3).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과정과 작전활동에 대해 미국측 자료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쟁 초기 주일미군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반도로 전개되었는가를 육·해·공군 등 각 군별로 분류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내용 전개상 먼저 주일미군의 참전 배경 및 결정 과정을 살펴본 후, 주일 미 육군사단인 미 제24사단,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오키나와의 제29연대, 제7사단의 한반도 전개과정을 한반도 상륙일정 순으로 살펴 볼 것이다. 주일미해·공군에 대해서는 6월 27일 남한지역에서의 한국군 지원에 대한 지침이 워싱턴에서 내려온 이후부터 시작된 군사 활동, 즉 작전범위, 출동규모, 작전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또한 지상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 규모에 맞춰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주일미군수지원부대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전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는 각종 군수지원부대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작전 활동을 평가하여 그 역할과 의의를 도출하여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미 극동군의 일부로서 주일미군의 군사력

6·25전쟁 발발 당시 주일미군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극동군의 일부였다. 미 극동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군사기구를 개편할 때 새로 발족된 통합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수행을 위해 세계를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곳에 6개의 통합군사령부를 각각 설치했다.[2] 극동군사령부도 이 때 설치된 미군

2) 미군의 통합군사령부로는 극동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알래스카사령부(Alaskan Command), 카리브해사령부(Caribbean Command),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 유럽사령부

의 통합군사령부 중의 하나이다. 통합군 총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 및 지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육군·해군·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3]

미 극동군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 맥아더의 남서태평양사령부를 모체로 1947년 1월 1일 재창설되어 일본 동경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4] 당시 극동군의 임무는 3가지였다. 첫째, 과거 일본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던 한국을 비롯한 점령도서에 대한 점령임무의 완수였다. 둘째, 미 극동군이 통치하는 지역 내에서 미국 정책의 지원이었다. 셋째, 유사시 비상사태를 위한 준비였다. 극동군사령부의 책임지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본토, 한국, 류큐열도,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 볼케노와 보닌열도 등을 경계선으로 했다.[5]

미 극동군사령부는 통합군사령부로써 극동육군사령부·극동해군사령부·극동공군사령부 등 3개의 예하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이들 극동군사령부의 예하 주요 지휘관으로는 극동육군사령관은 맥아더 원수가 겸임하고 있었고, 극동공군사령관에는 스트래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공군 중장, 극동해군사령관에는 조이(Charles Turner Joy) 해군 중장이 있었다.

이들 극동군 부대 중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요 부대의 예하 지휘관으로는 극동육군 예하의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육군 중장과 류큐지역 사령관 쉬츠(Joseph R. Sheetz) 육군소장, 극동공군 예하의

(European Command) 등이 있었다(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1990, p. 70).

3) James F.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vol. I (Washington D. 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6), p. 87.

4) Harry S. Summers, *Korean War Almanac* (New York : Facts on File, 1990), p. 111.

5)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 pp. 73~74.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 E. Patridge) 공군 소장, 극동해군 예하의 제90기동함대사령관 도일(J. H. Doyle) 해군 소장 등이 있었다.[6]

주일미군의 핵심인 미 극동육군에는 미 제8군과 4개 보병사단이 그 예하에 있었다. 미 제8군은 1944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시 뉴기니와 레이테 전투에서 미 육군 전투부대를 통합지휘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서 사령부는 요코하마에 있었다. 제8군 예하 사단으로는 혼슈(本州) 중부에 있는 제1기병사단, 홋카이도(北海島)에 있는 제7보병사단, 큐슈(九州)에 있는 제24보병사단, 혼슈의 남부에 있는 제25보병사단,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류큐사령부 소속의 제29독립연대와 제9방공포병단이 있었다.[7]

전쟁 당시 미 제8군은 5년간 점령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미 제8군의 충원율은 70%로 장교와 하사관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유경험자도 있었지만 병사들은 보통 19~20세의 청년들이었다. 당시 각 사단은 모두 점령군이라는 점과 훈련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49년 여름부터 계획적인 야외훈련을 시작했으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겨우 대대훈련시험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당시 미보병사단의 편제는 3각 편제였고, 사단 병력은 11,003명이었다.[8] 그러나 보병연대는 2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지원병과도 이와 비슷하여 포병대대는 2개 포대, 공병중대는 2개 소대였다. 보병연대 전차중대는 사단 전차대대에 통합되었고, 보유 전차도 점령군이라는 점과 일본의 도로망, 특히 교량관계로 편제상에 인가된 전차는 태평양전쟁시 미군이 대(對) 일본 작전용으로 생산한 M-24경전차뿐이었다.[9]

---

6)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48.

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 50;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52~54.

8) 6·25 전쟁 당시 미 제8군의 인가된 병력의 93%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군 사단의 전시편성 인원은 18,900명이고, 평시편성 인원은 12,500명이 인가되었으나, 그 중 완전편성된 사단은 하나도 없었다(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54).

미 극동공군은 1944년 6월 15일 호주 브리스밴(Brisbane)에서 창설되어 미 극동군총사령부의 일부로서 태평양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했다.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 점령군의 일부로 동경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극동공군의 전력은 18개 전투 및 전투폭격비행단, B-26 경폭격기로 편성된 1개 경폭격기 비행단, B-29중폭격기로 편성된 1개 중폭격기 비행단, 그리고 몇 개의 병력 수송부대로 편성되었다.[10] 이 중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 극동공군은 나고야에 주둔하고 있는 제5공군과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20공군이다.[11]

미 극동해군은 해군 중장 조이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다. 극동해군에는 상륙부대의 핵심인 제90기동부대와 소수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제96기동함대가 있었다. 이들 극동해군의 전력으로는 1척의 경순양함, 4척의 구축함, 그리고 6척의 어뢰정, 보조함 및 상륙용 주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예하의 미 제7함대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다. 미 제7함대는 해군 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고, 함대의 전력으로는 1척의 항공모함, 1척의 중순양함, 8척의 구축함, 그리고 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12]

이렇듯 극동군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일본 본토와 류큐열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극동미육군사령관으로서, 또 미군·영국군·호주군을 통합지

9) 미 극동군의 전력은 병력 105,000명으로, 육군은 1개 야전군과 4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해군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4척, 중순양함 1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8척, 잠수함 3척, 어뢰정 6척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군은 18개 전투 및 전투폭격비행단, B-26 경폭격기로 편성된 1개 경폭격기 비행단, B-29중폭격기로 편성된 1개 중폭격기 비행단, 그리고 몇 개의 병력 수송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투예비량도 3개월 분에 해당하는 90일분 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p. 78~85).

10)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49-50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pp. 5~6.

11) 극동공군 예하의 제13공군(13th Air Force)은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12) Summers, *Korean War Almanac*, p. 197.

휘하면서 일본을 통치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맥아더 원수에게는 한국 방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한국은 미 국무부의 관할로서 로버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한미군사고문단 482명이 주한미대사인 무초의 지휘하에 있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수집한 군사정보는 직접 워싱턴으로 보고되었고, 그 사본만을 동경으로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13]

그러나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의 극동군사령부는 워싱턴의 지침에 따라 주한미국인의 일본 철수를 비롯하여 한국군에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고, 주일 미 해·공군으로 하여금 한국을 지원케 하는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갔다. 이후 미 극동군으로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일미군은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한국의 위급한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

3. 주일미군의 참전배경과 결정과정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한국 중심의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전쟁 이후 미국의 군부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미국 시각으로 6월 25일 한국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던 존슨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는 한국중심의 전쟁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내린 적도 없다"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말했다.[14]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중장도 "남한이

13)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1962), pp. 37ff ;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 p. 62.

14)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 The Free

침략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우리들은 이러한 형태의 전쟁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그런데〕 한국개입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상당히 놀랐다. 맥아더 장군 역시 마찬가지로 놀랐다. 그것은 극동에 있어서 우리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은 결정이었다"라고 1951년 맥아더 청문회에서 밝혔다.[15]

따라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중에 한국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주한미대사관 및 군사고문단에 대한 군수지원과 유사시 비전투원인 주한미국인 철수계획(Chow Chow Plan)[16] 시행 이외에 한반도 작전에 관한 아무런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목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뿐이었다.[17] 맥아더는 극동군사령관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미 합동참모본부의 대소전쟁계획이나 극동군의 작전계획에 한반도를 상정한 전쟁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시된 내용에 한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미 합동참모본부의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지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로 외교 및 국방 수뇌부로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육·해·공군 장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무차관, 국무

Press, 1968), p. 128.

15) *MacArthur Hearings*, Part Ⅳ, p. 2574 ;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 ~30, 1950,* p. 138.

16) 한국에서 사태 발생시 미군이 수립한 주한외국인 철수계획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약 2,000명의 외국인을 미극동해군의 함정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대피하는 계획이다(UNC/FEC, INTELLIGENCE DIGEST & COMMAND REPORT, SN. 1-3, pp. 14~15).

17) 미 극동군 사령관은 6월 25일 09:25분에 주한미대사관 무관 및 연락장교단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았으며, 21:35분에 그때까지 상황을 요약하고 "한국으로 탄약수송은 촉진하고 있으며, 예비조치로써 제7함대를 한국 해역으로 이동시키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의 상황보고서를 미 육군부에 타전했다(국방부전편위, 『미 합동참모본부사 6·25전쟁』상, p. 62).

차관보 등이었다. 개전 초기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렸다.

첫 번째 회의는 한국 시각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미주리주 고향에서 주말 휴가를 보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6월 26일 09:00(미국시각 6월 25일 20:00)에 개최되었다.[18] 극동군사령부가 조치해야 될 회의 결과 내용이 즉시 맥아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됐다.

> "① 한국에 조사반을 파견하도록 인가한다. ② 서울-김포-인천지역의 상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약과 장비를 안전하게 도착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해·공군의 엄호 하에 한국으로 수송하도록 인가한다. ③ 미국인 가족과 주한미대사관이 결정하는 다른 미국 비전투원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김포-인천지역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가한다. ④ 제7함대는 즉시 사세보(佐世保)로 진출하여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도록 명령한다."[19]

맥아더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갔다. 맥아더 장군은 무초 대사의 결정에 따라 6월 26일 01: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미국인 비전투원을 해·공군을 동원하여 수송 및 호송했다. 이들은 인천에서 노르웨이 화물선 레인홀트(Reinholt)號에 682명을 철수한 것을 비롯하여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인천·부산·김포·수원에서 2,001명을 일본으로 철수시켰다. 그 가운데 미국인은 1,527명이었다.[20]

---

18)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안보회의에서 확인된 미군 총병력은 59만 2천명이었고, 제7함대의 전력으로는 항공모함 밸리 포지호, 순양함 로체스타호, 구축함 8척이 홍콩과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극동해군으로는 경순양함 쥬노호와 구축함 4척 등이 있었고, 극동군 지상군은 12만 3천명이었다. 극동공군은 F80전투기 375대, F82 무스탕전투기 30대, B26 경폭격기 32대, B29중폭격기 3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134~136).

19) 국방부전편위, 『미합동참모본부사 : 6·25전쟁』(상), p. 72.

맥아더 장군은 비전투원 철수작전 시행과 더불어 해·공군의 지원 하에 탄약지원도 서둘렀으며, 사태를 파악하고 지휘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6월 27일에는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구성했으며,[21] 이날 주한미군에 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음을 계기로 이를 「전방지휘소 및 주한연락단(ADCOM :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in Korea)」으로 명명하고 주한미고문단[22]의 지휘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임무를 추가로 부여받고 수원에 파견됐다.[23] 6월 28일 04:00,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하스레스 대령 등이 ADCOM에 출두하여 한강교 폭파 경위, 북한군 서울 시내진입 상황, 한국군이 지리멸렬하여 한강 도하 상황 주한미고문단의 주력이 서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사실 등을 보고했다. 처치 준장은 채병덕 총참모장을 찾아가 미 해·공군이 한국군을 지원하게 된 사실과 자신의 임무를 알림과 동시에 동해안 및 중부전선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미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했다.[24]

한편 주한 미군사고문단도 27일부터 29일 사이에 대부분 일본으로 철수

---

20) Staff Sec Rpt. G-1, GHQ, FEC, 1 Jan-31 Oct 50, p. 61 ;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71에서 재인용; 田中恒夫, 「韓國戰爭時 日本의 對유엔軍 陸上支援 活動」, 『6·25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한일국제학술세미나,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88.

21) *FRUS*, 1950, vol. Ⅶ, Korea, p. 210;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31. 조사반은 극동군사령부 군수참모차장 처치 장군을 비롯하여 극동군사령부 소속 장교 13명과 사병 2명이었다.

22) 주한미군사고문단은 6월 27일부터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감으로써6 월28 일 수원에 설치된 주한미전방지휘소에 그간의 상황을 보고한 후 국군작전의 지원을 계속했다(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p. 43).

23) 조사단은 6월 27일 04:00에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여 동일 06:00에 이타츠게에 도착했고, 수원에는 이날 밤 도착했다. 도착후 수원 농업시험장에 지휘소를 개소한 전방사령부는 6월 28일 채병덕(蔡秉德) 총참모장을 만나 작전을 조언하는 등 국군이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p. 43).

24)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韓國戰爭』1(명성출판사, 1991), p. 132.

하고 라이트(Wright) 대령을 비롯한 지휘부와 일부만이 잔류하였는데, 6월 27일부터는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한강을 도하, 수원으로 이동하여 전방지휘소에 그간의 상황을 보고한 후 한국군작전의 지원을 계속하였고, 이미 철수한 요원들도 후에 지상군 전개시 재투입되어 작전을 지원했다.[25]

두 번째 안보회의는 한국시각으로 6월 27일 08:00(미국시각 6월 26일 19:00)에 개최되었다. 당시 한국의 전선은 서울의 관문인 문산과 의정부가 함락되고 국군은 서울 북방 봉일천 및 창동 선에서 수도 서울 사수를 위한 최후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북한군의 돌파는 시간문제였다. 맥아더 원수가 조치해야 될 회의 결과 내용은 페이스 육군장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그가 맥아더에게 내린 전문 내용의 핵심은 "귀하의 임무는 북한의 침략을 남한으로부터 격퇴시키는 것"이었다.[26]

> "남한으로부터 북한의 군사력을 일소하기 위하여 38선 이남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공군이 공격해도 좋다. 마찬가지로 해군에게도38 선 이남에 있어서 남한에 대한 침략군을 막기 위해 연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해도 좋다."[27]

즉, 두 번째 회의에서 맥아더 장군에게 지시된 내용은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극동 해·공군은 38선 이남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공격하는 것으로 요체는 한국에서 북한을 일소하는 것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워싱턴의 이와 같은 지시에 놀라움과 만족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28]

6월 27일부로 한국에 대한 작전권을 부여받은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06:10(미국시각 6월 28일 17:10)에 한국 전선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하네

---

25)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42~43.
26)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81.
27) *MacArthur Hearings*, Part Ⅴ, p. 2581.
28)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81.

다 공항을 이륙했다.[29] 맥아더 장군은 이륙한지 2시간이 지난 08:00경 전용기 바탄호(C-54) 내에서 극동공군사령관(스트래트메이어 장군)에게 지시하여 제5공군사령관(패트리지 장군)에게 북한 기지를 쳐부수라고 명령했다.[30] 맥아더 장군 일행은 10:39분경 수원에 도착하여 이승만대통령과 무초 대사의 영접을 받은 후 처치 장군의 지휘소로 가서 전황을 보고받고, 전투상황을 직접보기 위해 점심도 거른 채 12:00경 한강방어선지역으로 출발했다. 한강변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은 "미군 지상전투부대가 투입되어야만 대한민국을 침략군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수원에 다시 돌아온 맥아더 장군은 처치 장군에게 자신이 동경에 도착하면 "즉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워싱턴 당국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31]

맥아더는 18:15분경 바탄호가 수원비행장을 이륙하자 비행기 내에서 수첩을 꺼내 놓고 워싱턴에 보낼 정세보고와 권고사항을 메모했다. 그는 "현 전선을 유지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길은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이다. 허락만 해준다면 이 지역에 1개 연대전투단을 지원군으로 보내고, 이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2개 사단을 증강시켜 반격작전에 투입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메모했다. 바탄호는 22:15 분경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세 번째 회의는 한국시각으로 6월 30일 06:00(미국시각 6월 29일 17:00)에 열렸다.[32] 회의는 존슨 국방장관이 한국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대통

---

29) 이 때 맥아더 장군을 수행한 참모들로는 참모장 알몬드 장군, 작전참모부장 라이트 장군, 정보참모부장 윌로비 소장, SCAP의 정치국장 휘트니 준장,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 장군 등 15명이었다(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229~230).

30)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p. 44.

31)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236~237.

32) 존슨 국방장관은 한국 사태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맥아더가 동경에 도착한지 2시간 40분이 지난 6월 30일 00:55경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06:00(미국시각 29일 17:00)에 회의를 소집하라

령에게 건의하여 소집되었고, 회의에서도 존슨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효과적인 군사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한지역에 국한된 공군과 해군의 활동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한 맥아더 장군에게 전투지원부대를 남한에 파견하고 한국의 동남단에 있는 부산항 변두리에 있는 해안 비행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보병 전투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33]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34] 트루먼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미 합동참모본부는 회의 결과 내용을 맥아더에게 전문으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귀관은 남한 군대가 남한 전역으로부터 북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관 휘하의 공군과 해군 병력으로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여 남한군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육군병력의 투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대규모에 한한다. 그러나 부산-진해 근해 내역에 있는 항구와 공군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투부대와 지원 부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서 제외한다 … 적의 공군기지, 병기창, 전차, 군대 그리고 순수한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군사 활동을 북한 지역까지 확대할 권한을 부여한다."[35]

한편 한국 전선을 시찰하고 난 후 작성된 맥아더의 전문보고서가 6월 30일 16:00(6월 30일 03:00)경에 국방부에 도착했다. 국방부의 당직 장교는 맥아더의 전문을 접수한 후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콜린스 장군은 맥아더와 텔레콘(telecon)을 통해 대화하고 나서 다시 육군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맥아더의 건의 내용을 보고한 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에게 30분 정도 기다려 보라고 말했다. 페이스 육군 장관은 콜린스 장군으로부터 맥아더의 입장을 설명

고 지시했다(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239).

33) 브래들리 장군은 맥아더 청문회에서 "전투부대 파견은 철수하는 미국시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testimony of General Bradley, *MacArthur Hearings*, Part Ⅱ, pp. 934, 1112).

34)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245~246.

35)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250~251.

받고 30일 17:57분(미국시각 04:57)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맥아더로 하여금 1개 연대전투단 병력 투입은 즉각 승인했지만 2개 사단 증강문제는 참모들과 협의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36]

한국시각으로 6월 30일 22:30(미국시각 30일 09:30)에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무장관·국방장관·국방차관·합참의장 등과의 회합을 갖고 맥아더 장군이 요구한 2개 사단 파견안에 대해 토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개 사단만 증파해 주면 북한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미 파견한 해·공군에 지상부대를 투입하면 전투는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37] 회의 참석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지상군 파견 제안이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도 맥아더 원수에게 "그의 휘하에 있는 병력을 사용할 전권(full authority to use the troops under his command)"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38] 이 회의가 끝난 후 합참의장이 동경의 극동군사령부에 "1950년 6월 30일자로 6월 29일에 취해졌던 육군 병력의 투입 제한조치를 해제한다(On 30 June 1950 the limitation on the employment of Army forces imposed on 29 June 1950 was rescinded)"[39]는 간결한 지시전문을 발송했다. 맥아더에게 주어진 전권이란 휘하부대 병력을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권한은 그가 건의한 2개 사단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은 이 결정에 따라 휘하의 극동군인 주일미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고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

36)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238~239.

37)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260.

38) Harry S. Truman, *Memoirs : Year of Trial and Hope*, vol. 2(Garden City, N. Y. : Doubleday & Co., 1956), p. 343.

39) Appendix K, *MacArthur Hearings*, Part V, p. 3192.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260에서 재인용.

4. 주일미군의 전개와 작전활동

(1) 주일 미 육군의 전개와 활동

미 극동군사령부는 워싱턴으로부터 지상군 참전을 승인 받은 후 주일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는 맥아더 원수가 한강변에서 최초 구상한 인천상륙작전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졌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남침을 어딘가에서 저지한 후 인천에 상륙하여 적을 일거에 격멸시킨다는 작전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아더의 작전개념을 극동군사령부 작전참모 라이트 장군은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주일미군의 전개 및 부대 운용의 방침으로 활용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의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저지한다. 저지선은 차령산맥과 소백산 이북의 선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 해병대와 제1기병사단을 7월 22일경 인천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블루하트 작전). 셋째, 미 제7사단으로 북부 일본의 방위를 강화하고, 미 제25사단은 그 남쪽 큐슈지역까지 방어한다. 넷째, 미 제7사단 등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출동하는 사단을 증강시킨다. 다섯째, 일본으로 하여금 자위능력을 갖추게 한다.[40]

그러나 7월 초 전선 상황이 악화되면서 맥아더는 최초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계획했던 블루하트(Blue Heart) 계획이 실행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미 제25사단의 주력과 인천상륙작전에 사용할 예정이던 제1기병사단도 한국에 투입했다. 또한 미 제7사단도 일본 북부 방위를 위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결국 주일미군 4개 사단은 미 본토 증원병력이 도착하여 낙동강 방어선이 축차적으로 투입된 후 블루하트 계획의 후

40)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 이원복 역, 『韓國戰爭』[1], pp. 151~152.

속으로 다시 계획된 상륙작전인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모두 전개되었다.

주일미군의 전개를 위해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큐슈의 사세보와 이타츠게가 발진기지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는 부산항[41]과 부산 수영비행장, 포항 영일만과 연일비행장이 활용되었다.

1) 1차 전개(7. 1~4):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미 제24사단

주일미군 중 최초로 전개된 부대는 미 제24사단이었다.[42] 6·25전쟁 발발시 제24보병사단은 일본 큐슈와 혼슈 남부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사단은 각각 2개 대대로 편성된 제19·21·34보병연대, 105밀리 포병인 제13·52·63포병대대, 155밀리 포병인 제11포병대대, 제78중전차대대 A중대, 제26대공포대대, 제3공병대대, 제24정찰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6월 30일 밤 지상군 투입결정이 내려지자 지체없이 제8군 사령관에게 주일미군 중 큐슈에 주둔한 제24사단을 파견하도록 명령했다. 이 때는 한강선에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개시간의 단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한국에 가장 가까운 24사단이 제일 먼저

41)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하면서 부산항에는 엄청난 양의 물자와 장비가 들어왔다. 부산항에는 연일 평균 20척의 배가 입항하여 하루에 10,660톤의 물량이 양륙되었으며, 7월 2일부터 31일까지의 양륙양은 30만 9천톤에 달했다. 부산항에는 4개의 선창이 있었으며 한번에 24척의 화물선을 댈 수가 있었고, 14척의 LST를 접안할 수 있는 안벽이 있어서 1일 최대 양륙능력은 4만5천톤이었다. 그러나 육상의 화물처리능력 때문에 하루의 양륙양은 1만 4천톤으로 제한되었다. 숙련된 부두노동자와 대형기중기, 그리고 철도와 도로의 수송능력이 부족한 결과였다.

42) 미 제24보병사단은 1921년 '하와이 사단'(Hwaiian Division)으로 하와이주 쇼필드 요새(Schofield Barracks)에서 창설되었다가, 1941년 10월 개편되면서 사단 일부가 제25보병사단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병력으로 사단을 재창설했다. 태평양 전쟁시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해 있던 사단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시 피해를 입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뉴기니아, 레이테, 남부 필리핀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Gene Gurney, *A Pictor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p. 185).

투입명령을 받았다.[43]

워커 중장은 미 제24사단장에게 "①대대장이 지휘하는 소총 2개 중대에 4.2인치 박격포 2개 소대와 75밀리 무반동총 1개 소대로 증강한 지연부대를 공수로 부산에 파견하여 처치 장군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②사단사령부와 보병 1개 대대는 즉시 공수로 부산을 향해 출동하라. ③사단의 잔여부대는 해상으로 수송한다. ④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격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기지를 설치하라. ⑤제1항의 부대임무는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북진을 개시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울에서 수원을 향해 남진중인 적과 접촉하여 이를 지연시키는 일이다. ⑥딘 소장은 한국에 도착하면 주한미군(USAFIK)의 지휘관으로 임명된다"라는 요지의 전개명령을 하달했다.[44]

이에 따라 선견대로 지명된 제21연대 제1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은 대대의 B·C중대를 중심으로 밤새 스미스특수임무부대를 편성했다. 제1대대는 제3대대로부터 장교를 보충받고 7월 1일 03:00 비가 쏟아지고 있는 속에 트럭으로 구마모또를 출발하여 08:05에 이타츠케(板付)에 도착했다. 이 부대는 이타츠케 비행장에서 사단장으로부터 "부산에 도착하면 대전으로 향하라. 우리는 가능한 부산에서 먼 북쪽에서 적을 지연하려 한다. 될 수 있는대로 보다 북쪽으로 올라가 주 도로를 차단하라. 처치 장군을 만나라"라는 명령을 받고 출발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C-54수송기 4대로 7월 1일 08:45 이타츠케 공항을 출발했다. 그러나 부산 수영비행장 상공은 짙은 안개 때문에 착륙할 수가 없어서 10회나 선회하다가 14:00~15:00 사이에 겨우 착륙하여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45]

이들은 이날 20:00에 기차로 부산을 출발하여 7월 2일 08:00에 대전에

43)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 1995, p. 196.

44)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59.

45)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60; Roy K. Flint,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8), p. 274.

도착했다. 스미스중령은 전방지휘소에 도착하여 처치장군에게 신고하고 상황설명을 들은 후 오산 북방 죽미령까지 지형정찰을 실시하고 대전으로 복귀했다. 그는 처치 장군으로부터 평택·오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날 밤 기차로 다시 부대이동을 하여 오산과 평택에 1개 중대씩 배치하고 대대지휘소를 평택에 설치했다. 그리고 미 제21연대의 직접지원 포병인 제52포병대대 A포대는 7월 2일 하카다(博多)에서 승선하여 이날 저녁 부산에 도착, 철도편으로 북상하여 4일에는 대대장 페리(Millero Perry) 중령이 인솔해 온 A포대와 합류하게 됨으로써 보·포를 통합한 하나의 특수임무부대가 구성되었다.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3일 10:30에 대전에 도착하여 스미스 부대를 평택과 안성에 배치한 처치 준장의 조치를 승인했다. 그러나 1개 중대로서 평택이나 안성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딘 소장은 당시 부산에서 승차 중에 있는 미 제34연대를 빨리 북상시키기 위해 이날 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7월 1일 사세보에서 승선한 미 제34연대는 2일 밤 부산에 상륙하여 열차로 전선에 전개했다. 구마모또의 미 제21연대는 3일 모지(門司)와 사세보에서 승선하여 4일 아침 부산에 상륙, 열차로 전선에 전개되었다. 쓰지도우(辻堂) 해안에서 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던 미 제19연대는 해상으로 4일 부산에 상륙하여 열차로 전선에 전개되었다.

이렇듯 일본 모지와 사세보(佐世保)항을 출발한 제24사단 주력은 우선 제34연대가 7월 2일 부산에 도착하여 4일에는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제21연대(-), 제19연대순으로 7월 4일 부산에 도착하여 전선에 전개했다.

7월 4일부로 딘 사단장은 처치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그리고 전방사령부 요원을 참모요원으로 하여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부산에는 가빈(Crump Garvin) 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8군의 부산기지사령부가 창설되어 주한미군의 군수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46]

이로써 국군이 한강방어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미군은 지상군투입 결정이 내려진 4일 만에 주일미군 제24보병사단의 전개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사단도 전개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듯 제24보병사단은 1950년 7월 1일 6·25전쟁에서 미 최초 지상군부대인 제21보병연대 제1대대를 한국에 파견하였고, 이어 사단 본대가 한국으로 전개했다. 사단은 1950년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오산, 천안, 조치원, 금강, 대전에서 지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고, 사단장인 딘(William F. Dean) 소장이 포로가 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 후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된 사단은 1950년 8월 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Fort Hood)에 있는 제2기갑사단으로부터 제6중전차대대를 지원 받고, 성능이 떨어진 사단 보유 제78전차대대 경전차를 90밀리 포가 장착된 M-46 패튼(Patton)형 중전차로 교체했다. 이 때 제34보병연대 제1대대가 제19보병연대 제3대대로 전환되었고, 제34보병연대 제3대대가 제21보병연대 제2대대로 배속 전환되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사단은 대전지역을 소탕하고 1950년 10월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진작전에 참가했다. 1950년 11월 1일 제21연대는 신의주와 압록강 사이에 위치한 종고동에 도달했다. 그러나 동쪽 방향으로 진격하던 제1기병사단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게 되자, 사단도 청천강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서울 이남으로 후퇴를 했다.

1951년 3월 철의 삼각지대 이남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반격작전에서 제24사단은 두각을 나타냈고,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 공세시에는 이를 격퇴했다. 1952년 1월 미 제8군의 중앙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사단은 책임지역을 미 제40보병사단에 인계하고 미 극동군 사령부의 예비가 되어 일본으로 이동했다. 제24보병사단은 1953년 7월 한국전선으로 다시 복귀하였으나, 미 제8군의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후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전쟁기간 중 사단은 전사자 3,750명, 부상자 7,395명, 실종 152

4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3~116.

명, 포로607명 등 총 11,889명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2) 2차 전개(7. 9~7. 13) : 미 제8 군사령부의 한국전선 이동

미 제8군사령부는 7월 9일 대구에 지휘소를 개소한 이후 전쟁기간 내내 주한미지상군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미 제8군은 1944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시 뉴 기니아(New Guina)와 레이테(Leyte) 전투에서 미 육군 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이 때 사령관은 아이첼버거(Robert Lawrence Eichelberger) 미 육군중장이었다. 6·25전쟁 당시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은 바로 아이첼버거 장군의 후임이었다.[47]

미 제8군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요코하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주일 미 지상군의 최고사령부였다. 이 때 제8군 예하에는 제1기병사단, 제7·24·25보병사단 등 4개 사단이 있었다. 워커 중장은 7월 6일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한국으로 출동하여 주한미군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9일 사령부를 대구에 개소하고, 7월 13일 11:00에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전력이 반감된 미 24사단과 적과 접촉이 없는 25사단, 그리고 부산기지사령부 등이 있었고, 이들 병력은 18,000명이었다.

1950년 7월 17일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 지상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로 받았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주한 미 대사인 무초를 통해 맥아더에게 위임하였고, 맥아더 장군은 이를 다시 제8군사령관에게 재 이양한 것이다.

6·25전쟁기간 중 미 제8군은 미군부대에 직접 배속된 한국군 부대를 제외한 모든 한국군 군단 및 사단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총참모장을 통해 지휘했다. 또한 미 제8군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지상군 부대에 대해

47)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 Times Book, 1987), pp. 33~34.

서도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미 제8군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방어전투 중에는 모든 작전을 직접 통제했다.

미 제8군은 1950년 9월 13일 미 제1군단이 한국전선에 투입되고, 23일 미 제9군단이 이어 투입되자, 이들 군단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미 제8군은 1950년 8월 26일 일본에서 편성된 미 제10군단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미 제10군단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부터 1950년 12월까지 유엔군사령부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고, 보고도 유엔사령부에 직접 했다. 이에 따라 지면편성도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 제8군은 한국의 서부지역을 담당하였고, 미 제10군단은 한국의 동부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장진호 전투 이후 흥남에서 부산으로 철수한 미 제10군단은 1950년 12월 24일부로 제8군의 작전 통제하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제10 군단에 대한 미 제8군의 작전통제는 전쟁기간 계속 유지되었다.

3) 3차 전개(7. 10~15) : 미 제25사단

미 제25사단은 주일 미 육군사단으로 한국전선에 2번째로 투입되었다.[48] 전쟁 발발시 제25보병사단은 일본 혼슈에 주둔하고 있었다. 사단은 각각 2개 대대로 편성된 제27·35보병연대와 흑인부대인 제24보병연대, 105 밀리 포병인 제8·64·159포병대대, 155밀리 포병인 제90포병대대, 제79중전차대대 A중대, 제21대공포대대, 제65공병대대, 제25 정찰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사단은 1950년 7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한국에 도착했다. 사단장은

48) 미 제25보병사단은 일명 번개(Tropic Lighting)부대로 유명하다. 이 사단은 1941년 8월 제24보병사단을 기간요원으로 창설되어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시 진주만 방어전투에 참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중부 태평양, 과다카날, 북부 솔로몬, 그리고 루손 전투 등에 참가했다(Gurney, *A Pictor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p. 186).

제2차 세계대전시 패튼 장군의 참모장을 지낸 53세의 역전 노장의 킨(William B. Kean) 소장이었다. 킨 사단장은 7월 8일 대전으로 와서 딘 장군의 지시를 받아 지휘소를 대구 동쪽 영천에 개소했다. 사단은 제27연대가 10일에, 제24연대가 12일에, 제35연대가 13~15일에 각각 부산에 상륙했다.

킨 사단장은 7월 12일 주한미육군사령관인 딘 장군으로부터 "사단은 주력으로서 한국군을 증원하여 북한군이 충주 이남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1개 대대로서 연일비행장을 경계토록하고 1개 연대를 김천에 위치시켜 군의 예비로서 언제든지 대전 또는 청주 방면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킨 사단장은 부산에 상륙한 각 연대를 적응훈련도 없이 곧바로 전방으로 이동시켰다. 제27연대를 의성에, 제24연대를 상주에 배치시켜 한국군을 지원토록 하고, 제35연대를 김천에 집결시켜 군의 예비로 하면서 1개 대대로서 연일비행장 경계를 담당하도록 했다.

사단은 예천 전투에서 첫 반격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낙동강 방어선 전투, 특히 마산지구 전투에서 적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제27보병연대는 미 제8군의 소방부대(Fire Brigade) 임무를 맡아 낙동강 방어선의 위협받는 지역에 투입되어 작전을 성공시켰다.

1950년 8월 사단은 M-4셔먼 전차로 편제된 제89중전차대대로 교체하였고, 오키나와의 제29연대전투단으로부터 2개 대대로 편성된 제27·35보병연대의 제3대대를 보충 받아 3각 편제를 이루게 되었다. 1951년 10월1일 미 제8군의 인종차별 폐지 지시로 흑인부대인 제24보병연대와 제159포병대대를 해체하고, 대신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Fort Carson)의 제14보병연대와 제69포병대대로 교체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사단은 전주 남서쪽으로 기동하여 남한 내의 적을 소탕했다. 북진시 사단은 청천강 선에서 중공군과 수차례 걸쳐 전투를 실시했다. 1951년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시 사단은 미 제8군의 방어지

역을 맡아 철의 삼각지대 전투를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고지인 엘코(Elco), 레노(Reno), 베가스(Vegas), 베를린, 동베를린 등의 전투에 참가했다.

전쟁기간 중 사단은 전사 3,048명, 부상 10,186명, 실종 67명, 포로 384명 등 총 13,685명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입었다.

4) 4차 전개(7. 18~22) : 미 제1기병사단

제1기병사단은 블루하트 작전에 의해 최초 인천으로 상륙하려 했던 계획이 7월 10일 정식으로 취소되자, 7월 18일부터 요코하마에서 포항으로 상륙시켜 전투력이 약화된 미 제24사단을 증원할 계획이었다.

제1기병사단은 미 육군과 함께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호칭이다.[49]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레이테, 루손 등지에서 전투를 하였고, 종전 이후에는 일본 도쿄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의 기병사단은 일반 보병사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으며, 연대도 보병연대의 편성과 똑같으나 기병연대라는 이름으로 호칭될 뿐이었다.

6·25전쟁 발발시 제1기병사단은 일본에 주둔해 있었다. 제1기병사단(이름만 기병이고 실제로는 보병부대임)은 제5·7·8기병연대로 편성되어 있고, 각 연대는 2개 대대로 감소 편성되어 있었다. 사단은 이들 3개 기병연대 외에도 105밀리 포병인 제61·77·99포병대대와 155밀리 포병인 제82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제71중전차 대대 A중대, 제8공병대대, 제92대공포대대, 제16정찰중대가 사단장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

크로마이트 계획으로 인천에 상륙할 것으로 알고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던 기병사단은 1,450명의 인원을 보충받아 편제인원의 60%인 총원 10,027

49) 미 제1기병사단은 1921년 9월 13일 텍사스(Texas)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에서 3개 기병연대를 주축으로 창설된 후 미 서부평원에서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보병부대로 남부태평양 전선에서 싸웠다. 특히 사단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에 최초로 입성한 부대로도 유명하다(Gurney, *A Pictor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p. 188).

명으로 7월 12~14일에 요코하마에서 승선, 15일 출항하여 18일 06:10에 제5·8기병연대가 포항의 영일만에 상륙했다. 그러나 태풍 헬렌으로 인해 제7기병연대(연대장 세일 니스트 대령)는 4일 후인 22일에 영일만에 상륙하여 제1대대를 영일과 포항방어를 위해 남겨두고, 본부와 2대대는 김천 서측의 추풍령으로 전개했다. 연대의 임무는 사단의 주보급로 확보였다. 이처럼 1기병사단이 영일만으로 상륙한 것은 부산항이 보급품의 양륙으로 복잡한 것을 고려해서였다.

이들 연대는 1950년 8월 말에 제3대대를 각각 보충 받아 3각 편제를 이루게 되었다. 제5기병연대 제3대대는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Fort Carson)의 제14보병연대 3대대가 배속 전환되었고,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조지아주 포트 베닝(Fort Benning)의 제15보병연대 1개 대대가 배속 전환되었고, 제8기병연대의 제3대대는 매사추세추 포트 데븐스(Fort Devens)의 제7보병연대 1개 대대가 배속 전환되었다.

사단은 1950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에서 포항으로 상륙하여 한국전선에 병력을 전개한 후 7월 지연전부터 9월 낙동강 방어 전투를 거쳐 북진작전에 참가했다. 1950년 9월 26일 오산 근처에서 인천상륙작전 부대인 미 제10군단과 접촉한 이후에는 미 제8군의 최선봉부대로서 1950년 10월 19일 미군 부대로는 최초로 평양에 입성하는 부대가 되었다.

또한 사단은 1950년 11월 1일 중공군과 최초로 교전한 미군 부대로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제8기병연대는 압록강 남쪽 50마일 지점의 운산 지역에서 중공군 2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공군 개입 이후 남쪽으로 후퇴한 사단은 제8군의 재정비 후에 시작된 재반격작전 중 지평리 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전투를 치뤘다. 1951년 12월 사단은 방어전면을 미 제45보병사단에 인계하고 일본으로 귀환했다.

6·25전쟁기간 동안 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시 입은 피해 4,055명의 사상자 보다 약 4배가 많은 16,498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또한 사단은 1965년 9월 베트남 전쟁에 최초로 참전한 사단으로도 유명하다.

5) 5차 전개(7. 24) : 미 제29연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9연대는 대전이 함락되고 제25사단이 후퇴하는 등 전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개되었다. 미 제29연대는 7월초 미 제8군이 증원을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부대가 오키나와의 제29연대였는데 병력 및 훈련 부족으로 곧바로 한국에 파병되지 못했다. 제29연대는 최소한 일본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한국으로의 파병을 고려했다. 그런데 전선 상황의 악화로 7월 15일 2개 대대를 편성하여 신속히 출동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제8군사령부로부터 받았다.

이에 제29연대는 1·3대대의 결원을 보충하고, 7월 20일 미 본토에서 도착한 신병 400명을 양개 대대에 보충시켜 정원 883명을 거의 보충한 후 출동준비를 완료했다. 연대본부는 오키나와 방위의 기간부대로 잔류했다. 7월 21일 제29연대는 오키나와를 출발하여 24일 부산에 상륙했다. 제29연대는 당초 예정했던 6주간의 훈련은 무시되고 부산에 상륙한 후 장비수령, 영점조정, 시험사격 등을 위해 3일간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곧장 진주로 이동하여 25일 진주에 도착한 후 제24사단 제19연대의 지휘하에 들어갔다. 연대는 그날 저녁 3대대(못트 중령)는 하동을 공격하고 1대대(윌슨 중령)는 안의지역 방어임무를 맡으라는 명령을 받게 됨으로써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하고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제3대대는 26일 00:30분에 차량으로 진주를 출발, 홍수로 교량이 파괴되어 사천-곤양-원전-하동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택했고, 도로사정 악화로 하동고개 못 미친 황천리에서 야영을 했다. 27일 08:45 대대가 출발하여 10분 후 하동고개에 도달했을 때, 고개주변에는 채병덕 장군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개 북쪽 180고지에서 적의 사격으로 채병덕 장군이 전사하고, 못트 대대장을 비롯한 라이블 부대대장, 정보주임 등 많은 장교들이 부상을 입었다.[50]

---

50) John Toland, *In Mortal Combat*, 육군본부 역, 『死線을 넘어서』, 1994, p. 126.

6) 6차 전개(9. 15) : 미 제7사단

미 제7사단은 주일미군 사단 중 가장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단이었다.[51] 사단은 1945년 9월 한반도에서 38도선 이남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하여 남한에 진주한 후, 1949년 일본 홋카이도로 철수할 때까지 약 4년간 한국에 주둔했다. 전쟁 발발시 사단은 홋카이도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제7사단은 제17·31·32보병연대, 105밀리 포병인 제48·49·57포병대대, 제73중전차대대, 제15대공포대대, 제13전투공병대대, 제7정찰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1950년 7월 일본 주둔 미군 보병사단들이 한국전선으로 이동하자, 사단은 다른 사단의 병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인천상륙작전이 결정되면서 8월 31일까지 카튜사 8,652명이 제7사단에 편입되었다.[52] 이로써 제7사단은 완전 편제를 이루게 되었다.

1950년 9월 17일 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의 후속부대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고, 이후 서울탈환작전과 낙동강 방어선으로부터 진격해 올라오는 미 제8군의 예하부대와 연결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서울탈환작전 후 사단은 동해안 상륙작전을 위하여 1950년 10월 부산에서 재 출항하여 흥남 북쪽 75마일 지점에 있는 이원에 상륙했다. 1950년 11월 21일 제17연대가 압록강변의 혜산진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장진호에 투입된 맥클린 특수임무부대(Maclean Task Force), 제31보병연대, 제32보병연대 제1대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참패했다. 1950년 12월 19일 흥남에서 철수한 사단은 미 제8군의 방어지역 일부를 담당하였고, 1951년에는 중부전선의 양구-인

51) 미 제7보병사단은 1918년 1월 1일 조지아(Georgia)주 캠프 휠러(Camp Wheller)에서 창설되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시 프랑스의 서부전선 로레인(Lorraine) 전투에 참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알류산 열도의 아튜(Attu)에 상륙하여 이스턴 먼데이트(Eastern Mondates), 레이테(Leyte), 류큐(Rhukyus) 전투에 참가했다(Gurney, *A Pictor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p. 185).

5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168.

제-화천지구 전투에 참가했다.1952년부터 1953년까지 철의 삼각지대와 제인 러셀(Jane Russell), 포크 찹(Pork Chop) 고지 전투 등에 참가했다.

전쟁기간 중 사단은 전사 3,905명, 부상 10,858명, 실종 22명, 포로 341명 등 총 15,126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2) 주일 미해군의 전개와 활동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 극동해군, 즉 주일미해군의 한반도의 전개는 최초 주한미국인을 철수시키기 위해 2척의 구축함(맨스필드함과 드 해븐함)을 인천으로 파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53] 그 다음 단계로 극동해군은 한국군에게 보급할 탄약을 수송하는 일이었다. 6월 27일 서전트 케슬리(Sergeant Keathley)호와 카디날 오코넬(Cardinal O'connell) 호가 탄약을 적재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6월 27일 남한에서 해군의 활동이 승인되자, 극동해군은 쥬노함과 제91구축함분대의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96.5기동전대를 편성하여 사세보를 기지로 한국 연안에 대한 초계활동을 실시했다.[54] 이후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면서 극동해군은 일본선박통제국 소속 LST 16척을 인계하여 주일미육군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전쟁기간 동안 작전책임구역으로는 37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37도선 이남의 동해안 및 서해안은 한국 해군이 담당하였고, 37도선 이북의 동해안은 히긴스 제독의 96.5기동전대에서, 그리고 37도선 이북의 서해안에 대해서는 영연방 해군의 제96.8기동전대가 맡았다.[55]

전쟁기간 중 미 극동 해군은 4개의 작전사령부를 통제했다. 제7공격함대(Seventh Fleet Striking Forces)로 알려진 제77기동부대(TF-77)는 빠른

53)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67.
54)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68.
55)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p. 76.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한국의 동해안에서 대부분의 작전 활동을 전개했다. 봉쇄 및 호위함대(Blockade and Escort Force)로 알려진 제95 기동부대는 주로 유엔군 참전국 해군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한국 서해안에서 활동했다. 또한 이들 부대에는 동해안에서 활동하는 부대와 소해함대 부대, 그리고 한국 해군 부대도 포함되어 있다. 극동상륙군(Amphibious Force Far East)으로 알려진 제90기동부대는 포항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을 수행했다. 주일 미해군으로 알려진 제96 기동부대는 대잠수함 활동과 일본내 미 해군기지의 방호임무를 수행했다.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유엔사령관과 극동사령관의 해군에 관한 보좌 임무뿐 아니라 태평양상에서 해상수송근무부대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해상수송근무부대는 1947년 미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른 합동군수기구 설치에 의거 1949년 10월에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해상수송근무부대는 구(舊) 해군수송근무단과 해외병력 수송임무를 전담했던 육군수송단의 장비와 기능을 흡수하여 설치되었다.

해상수송근무부대는 전세 선박, 해군 소속 선박, 국가소속의 수송선과 화물선, 그리고 국방부 원유공급청의 유조선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외에도 해상수송근무부대는 12척의 화물선과 39척의 상륙용 함정(LST : Landing Ship Tanks)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선박통제국을 통제하고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 미 해군은 영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함정들을 극동해군에 편성하여 한국의 연안에서 해상작전 및 지상군에 대한 지원작전을 전개했다. 한국 해역에는 유엔군의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소해함(掃海艦), 그리고 기타 함정들이 배치되었다. 극동해군은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하여 흥남철수작전, 적 보급 및 병참선 차단작전, 그리고 해군 항공과 함포를 이용하여 지상군 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해상수송근무부대는 화물 52,111,209톤, 유류 21,828,879톤, 그리고 인원 4,918,919명을 수송했다.[56]

---

56) Summers, *Korean War Almanac* , p. 199.

전쟁기간 동안 미 전함은 소화기로부터 16인치 포에 이르기까지 4백만 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건물 3,334동, 선박 및 단정 824척, 기관차 14대, 트럭 214대, 전차 15대, 교량 108개, 보급품 저장소 93개, 인원 살상 28,566명에게 피해를 주었다.

전쟁기간 중 미 해군 함정 73척이 적 해안 포대에서 발사한 화력과 기뢰(機雷)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4척의 소해함정과 1척의 원양 예인선이 적의 기뢰에 의해 침몰되고, 5척의 함정은 피해를 입었다. 적은 해안에 1,535발의 기뢰를 광범위하게 살포했다.[57]

미 해군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체병력 178만 9천명 중 전사 364명을 비롯하여 전체 사망 492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3) 주일 미 공군의 전개와 작전활동

미 극동공군은 1944년 6월 15일 호주 브리스밴(Brisbane)에서 창설되어 미 극동군총사령부의 일부로 태평양지역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했다.[58] 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 점령군의 일부로 동경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극동공군 예하의 주요부대로는 일본 나고야에 주둔한 제5공군,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13공군,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20공군 등이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작전지역 고유의 방공임무를 위해 제13·20공군은 현 주둔지에 위치시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대신 나고야에 주둔하고 있는 제5공군만을 한국전선으로 이동시켜 전개했다.

---

57) Summers, *Korean War Almanac*, p. 65.

58) 극동공군 창설 당시 미공군은 공군본부 산하에 전략공군사령부, 전술공군사령부, 훈련사령부, 알래스카사령부, 카라비안사령부, 제7공군, 유럽공군 등 14개 주요사령부를 두고 있었다(Alfred Goldberg,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1950~1957*, Nostrand Company, 1957, pp. 99~108).

극동공군의 주력으로 패트리지(Earle E. Patrige) 소장이 지휘하는 제5공군은 나고야에 사령부를 두고 일본 본토 방어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 한국전 투입 당시 제5공군은 6개의 전투폭격대대, 2개의 전천후 전투비행대대, 3개의 전투요격대대, 2개의 폭격대대, 2개의 수송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와쿠니(岩國) 기지의 호주공군 제77 전투비행대대를 배속하고 있었다. 전쟁 당시 제5공군은 이타츠케 기지, 미사와(三澤), 요코다(橫田) 기지, 존슨기지, 다찌가와(立川)기지,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59]

한국전 참전이 결정된 이후 제5공군은 공격부대와 방위부대로 재편성했다. 공격부대는 한국전에 직접 참전하는 부대이고 방위부대는 일본의 영공방위와 비행장 건설공사를 위한 부대였다. 이에 따라 이타츠게에는 제5공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전방사령부가, 나고야에는 제5공군부사령관이 지휘하는 후방사령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공격부대로 결정된 부대는 한국에 가까운 지역으로 집결되었는데 제3폭격비행단이 이와쿠니 기지로, 제49 전투폭격비행단과 제8전술정찰대대가 이타츠케 기지로, 제35 전투요격비행단이 아시야(芦屋)기지로 이동 배치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작전을 전개하던 제5공군은 항속거리가 문제가 되자 한국으로의 기지이전을 모색했다. 제5공군은 7월 3일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대구비행장(K-2), 부산수영비행장(K-9), 포항비행장(K-3) 등 3개의 비행장을 확장하여 8월부터 전술부대의 작전기지로 활용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이타츠케에 있던 전방사령부를 주한 미 제5공군사령부로 개칭했다.[60]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 미 제5공군의 전투부대가 1950년 9~10월에 38도선 이남의 비행장으로 이동 배치되기 시작했다. 9월 7일 부산수영비행장(K-9)에 제18전투폭격비행전대(이타츠게)의 2개 전투폭격대대가, 10월 1일에는 제49전투폭격전대(이타츠게) 전 병력이 대구비행장(K-2)으로 이동

59) Hq. FAF, 'FAF Command Organization', "FAF Review", Jun. 1950.
60) 空軍本部, 『UN空軍史』, 1975, pp. 41~46.

했고, 10월 7일에는 포항비행장(K-3)에 제35전투폭격대대(이와쿠니)의 2개 전투요격대대가 이동했다. 김포비행장(K-14)에는 제51전투요격전대와 제8전투폭격대대가 이동했다.[61]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제5공군 전술부대는 지상군의 북진 속도와 보조를 맞춰 공군기지를 38도선 이북지역의 최북단 비행장이 있던 신의주까지 확대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과 유엔군의 지상군 후퇴가 공식화되면서 38도선 이북에 있던 공군기지들은 시차를 두고 철수했다.

1951년 5월 18일부로 제5공군 소속의 모든 전투부대에 대한 한국 내 기지로 이동명령을 하달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6월 14일에는 제5공군 전방지휘소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전했고,[62] 1952년 6월 2일까지 한반도내에 제5공군 전술부대의 전개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과 유엔 지상군의 후퇴가 공식화되면서 38도선 북단에 있던 전술부대들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남쪽으로 철수하였으며, 동시에 제5공군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12월 1일자로 이루어진 제5공군의 조직개편은 제314항공사단(Air Division)[63]의 편성과 임시로 편성된 전술지원비행단을 미공군에 정식 편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영공방어와 주일미공군에 대한 군수지원,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에 필요한 병참지원, 일본 내의 비행장 건설을 목적으로 나고야에 제314항공사단이 편성되었다.[64] 미 제314비행사단이 창설되자 패트리지 소장은 미 제5공군사령부를 주한 미 제5공군사령부에 통합했다.[65]

---

61) Hq. FAF, Daily Journal, 7 Sept. 1950. 8 Oct. 30 Oct.

62) Hq. FAF, Daily Journal, 5 May 1951.

63) 항공사단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전투비행단(Combat Wing)으로 구성되나 다른 조직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Woodford Agee Hefli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Dictionary*, 1956, Air University Press, p. 25).

64) Ltr. Brig. Gen. E. J. Timberlake, V/C FAF to CG 314th Air Div., sub : Mission Letter, 1 Dec. 1950.

65) ltr., Timberlake to CG 314th Air Div., sub : Mission Letter, 1 Dec. 1950, 17 Feb. 1951, 9 Apr. 1951, 19 Apr. 1951, and 29 Apr. 1951.

<표 1> 미 제5공군 전술부대의 배치 현황(1952년 6월 2일 현재)

기 지 명	부 대
여의도기지 (K-16)	제5공군전방사령부, 제6167작전대대, 제5수송대대, 제931항공공병전대, 제1전염병대대, 제1쇼오란비이콘대대, 제3통신전대, 제10연락대대, 제30기상대대, 제502전술항공통제대대, 제1818항로통신대대, 제6154기지전대, 제6167기지전대
김포기지(K-14)	제4전투요격비행단(F-86 3개 대대), 제67전술정찰비행단 (3개 대대), 호주공군 제77 대대
수원기지(K-13)	제8전투폭격비행단(F-80 3개 대대), 제51 전투요격비행단(F-86 2개 대대), 제319전투요격대대, 제934항공공병전대
K-6	제12해병비행전대
군산기지(K-8)	제3폭격비행단(B-26 3개 대대)
K-4	제6146항공기지대, 한국공군본부
진해기지(K-10)	제18전투폭격비행단(F-51 2개 대대), 제2남아연방대대
수영기지(K-9)	제17폭격비행단(B-26 3개 대대), 제930항공공병전대
대구기지(K-2)	미 제5공군사령부, 제49 전투폭격비행단(F-84 3 개 대대), 제136 전투폭격비행단(F-84 3개 대대), 제 6149임무전대, 제 41항공공병여단, 제6151기지대
K-3	해병제1비행단
K-18	제6152기지대
K-46	한국공군, 제18전투폭격비행단 (전방)
K-47	제6147전술통제전대

이와 함께 1951년 5월 18일 미 제314비행사단을 제5공군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 제5공군 예하 전 전투부대를 한국 내 기지로 이동시킬 계획을 진행했다.[66] 1951년 6월 14일 대구 주둔 미 제5공군 지휘소를 폐쇄하고 서울에 다시 개설했다. 제5공군은 1952년 6월 2일까지 한반도내에서 부대전개를 완료했다. 〈표 1〉은 1952년 6월 2일 현재 미 제5공군 전

66) FAF, Dep. Opns. *Daily Journal*, 5 May 1951.

술부대의 배치 현황이다. 이러한 미 제5공군의 배치는 종전시까지 커다란 변화없이 계속 유지되었다.[67]

전쟁 발발 당시 주일 미 제5공군은 9개 비행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보유대수는 1,172대(가동기 350대)였고, 주력기는 18개 편대로 이루어진 방공전투기(대부분 제트전투기 F80s)였다. 그러나 이 주력이 일본 북부에서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 출격할 수 있었던 것은 4개 편대뿐이었다. 그리하여 26~27일 양일에 걸쳐서 그 주력을 큐슈로 집결시켜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하는 동시에 전투폭격기의 부족을 통감하고 워싱턴에 F80s 164대, F51s 64대의 증파를 요청했으나, 당시 F80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F51기 145대를 항공모함 복서(Boxer)호로 보냈다. 복서호는 태평양을 8일 7시간의 신기록(보통 14~16일)으로 횡단했다.

이리하여 수일 만에 남한 상공에서 공군의 우세를 확보한 미 극동공군은 7월 3일 공지합동사령부(JOC)를 일본의 이타츠게에 설치하고 같은 날 일선에서 항공기와 지상부대의 연락업무를 수행할 전방항공통제반(FACT) 2개 반을 대전으로 파견했다. FACT는 이후 한국군의 군단과 사단에 각 1개 반, 미 지상군 개입 후에는 미군 사단에 6개 반이 배치됨으로써 공지합동작전을 위한 체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공군의 지상군 부대에 대한 근접지원은 공지통신장비의 부족과 통신병 및 조종사들의 훈련미숙, 그리고 지형의 오인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오폭사고를 일으켰다.

전쟁 동안 미국 및 유엔군 공군의 타격 목표는 주로 적의 병참선, 후방지역 부대, 보급 및 병참시설, 자동차, 화물을 적재한 차량 및 기차 등이었다. 미국은 공군을 운용함에 있어 3단계와 공격개념을 적용하여 작전을 수행했다.[68] 제1단계는 1950년 8월부터 11월까지로서 이 시기 주요 목표물은

67) US Air Forces 2, pp. 100~104.

68) OCMH, *Air and Naval Interdiction in the Korean War*, prepared for DCSOPS in July 1964.

철로와 도로상의 교량이었다. 9월 중순까지 주요 목표물인 교량은 한국 남서부의 폭격 지역으로부터 한·만 국경에 위치한 압록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제2단계는 1950년 12월부터 1951년 8월까지로서, 이 시기에는 교량들이 계속 주요 목표물로 작용하긴 했지만, 주안은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 우선을 두었다. 제3단계는 1951년 8월부터 1952년 6월까지로서, 이 시기에는 철도망이 주요 목표물이 되었다.

전쟁기간 중 미 극동공군은 720,980 쇼티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제5공군이 적기 950대를 격추하는데 66,997 쇼티, 전략폭격사령부와 제5공군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수행한 공중차단작전에 192,581 쇼티, 근접항공지원에 57,665 쇼티, 전투화물수송사령부의 화물수송에 181,650 쇼티, 기타 항공정찰 및 훈련에 사용된 222,078 쇼티가 있다.[69] 그 과정에서 미 극동공군은 폭탄 460,000톤, 네이팜탄 32,357톤, 로켓탄 313,600발, 연막로켓탄 55,797발, 기관총탄 166,853,100발을 발사했다.

그 결과 1950년 6월 26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미 공군, 해병대, 그리고 기타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전차 1,317대, 차량 882,920대, 기관차 967대, 철도차량 10,407개, 교량 1,153개, 건물 118,231동, 터널 65개, 대포진지 8,663개, 벙커 8,839개, 유류저장소 16개, 선박 593척, 적 184,808명을 사살한 것으로 보고했다.[70]

(4) 주일 미 군수지원부대의 전개와 활동

전쟁 동안 미군은 한국군 및 유엔군에 대한 군수지원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이에 미 제8군은 1950년 7월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전투부대를 지원

69) Summers, *Korean War Almanac*, p. 110.
70) Summers, *Korean War Almanac*, p. 111.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령부 예하에 부산기지사령부를 설치했다.[71]

7월 8일 맥아더로부터 주한유엔군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부여받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7월 13일 부산기지사령부를 미 제8군 예하인 편제표상 B형의 군수부대인 부산군수사령부로 개편했다.[72]

미 제8군 예하 사령부인 부산군수사령부는 한국에 있는 전투부대들로부터 군수품을 신청 받아 일본의 미 제8군 후방사령부에 신청하고 일본의 후방사령부가 공급해주는 보급품을 수령·보관·지급해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로써 6·25전쟁에서 군수지원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미 제8군은 부산군수사령부를 통하여 예하 부대 및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 보급품 조달, 수송, 항구운영, 보관, 분배임무 이외에도 후방사령부를 통해 일본 점령임무도 책임지고 있었다.

그 후 한국에서 전장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미 제8군사령관이 지상군작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8군의 전방사령부와 후방사령부를 각각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1950년 8월 25일 미 제8군 후방사령부를 기간으로 하여 극동군사령부 예하에 주일군수사령부(JLC : Japan Logistical Command)를 창설했다.[73] 이로써 미 제8군은 지상군작전과 관련이 없는 임무에서 벗

<표 2> 전쟁시 미 육군의 군수부대 분류 기준[74]

구분	A형 군수부대	B형 군수부대	C형 군수부대
기준	3만명 이하 전투부대 지원하는 군수부대	10만명 이하 전투부대 지원하는 군수부대	40만명 이하 전투부대 지원하는 군수부대

71) Headquarters USAFFA & Eighth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Washington D. C. : the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Vol. 1, Ch. 1, p. 6.

72) Appleman, *South to Naktong, North to Yalu*, p. 114.

73) Headquarters USAFFA & Eighth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p. 9~11.

74) Field Manual(Draft), *The Logistical Command*, C & GSC, Fort Leavenworth(1 May, 1950).

어나게 되었고, 주일군수사령부는 한국의 모든 지상군 부대에 대한 군수지원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주일군수사령부는 미 제8군이 신청한 보급품을 공급, 전구 재고품 기록 유지, 한국에 직접 수송하거나 일본에 재 보관할 보급품을 미국에 신청 및 일본 현지 조달, 군수지원을 위한 항구, 보급창, 기타 시설들을 운용,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군수지원, 그리고 일본 점령 업무에 대한 책임도 맡았다.

1950년 9월 19일 부산군수사령부는 전투부대의 증가에 따른 군수지원의 책임이 증가됨에 따라 C형의 군수부대인 제2군수사령부로 개칭되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편성된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3군수사령부가 인천에 설치되었다.[75] 이를 표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전쟁시 미군의 군수부대 현황[76]

구 분	설치연도	배 속	설치배경	비 고
부산기지사령부	1950.7.4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지원	A형 군수부대
부산군수사령부	1950.7.13	미 제8군사령부	주한미군지원	B형 군수부대
주일군수사령부	1950.8.25	극동군사령부	주한미군지원 일본점령업무	1952.10.1일 해체
제2군수지원사령부	1950.9.19	미 제8군사령부	부대증가	C형 군수부대 한국군수기지국 개편
제3군수지원사령부	1950.9.19	미 제10군단	제10군단지원	제2군수사령부에 통합
한국병참지구사령부	1952.7.10	극동군사령부	제8군 지원 37선이남책임	제2군수사령부가 한국군수기지국 개편

75) Headquarters USAFFA & Eighth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12.

76) Spencer C. Tucker,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New York : Facts on File, 2002), pp. 285~286, 584~585, 644~645.

이처럼 군수지원사령부가 전투작전에 최초로 사용된 것은 한국에서이다. 군수지원사령부는 육군의 일부로서 전투지역에서 활동했다. 1950년 9월 제2군수지원사령부는 부산군수지원사령부를 대신하여 군수지원사령부 편제표 C형에 의거 조직되었다.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임무는 한국의 제8군에게 줄 군수품을 수령, 저장,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2군수지원사령부는 또 미 제8군이 일본군수사령부에 요청한 것을 대부분 추진해 주었다. 제8군사령부는 60일분의 군수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요청 받은 탄약, 유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통제를 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B형 편제표에 따라 제3군수지원사령부가 제10군단을 군수지원하기 위해 군단 책임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는 제2군수지원사령부가 미8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77]

그 후 제3군수지원사령부는 미 제10군단이 원산상륙작전을 위해 이동하게 되자, 미 제8군에 예속 변경됨과 동시에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제3군수지원사령부는 미 제8군이 북으로 진격함에 따라 전방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미 제8군에 대해 군수지원 했다. 반면 제2군수지원사령부는 원산으로 이동하는 미 제10군단에 대한 군수지원 책임을 맡았다. 그 후 제3군수사령부는 1950년 12월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할 때 부산으로 내려와 제2군수사령부에 통합 흡수되었다.[78]

한편 1952년 7월 10일 미 극동군사령관은 미 제8군사령관이 작전에 전념하도록 한국병참지구사령부(KCOMZ : Korean Communication Zone)를 설치했다. 이는 제8군사령관이 전술작전에 이외의 다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국병참지구사령부는 북위 37도선 이남의 후방지역에 대한 책임과 미 제8군에 대한 군수지원 책임을 맡았다.[79]

---

77)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 Army Logistics, 1775~1953*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 639.

78) Headquarters USAFFA & Eighth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p. 17~24.

79) 한국병참지구사령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유엔군과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 행정, 모든 수송수단의 통제, 후방지역의 치안 유지, 전쟁 포로 및 피난민 보호, 한국정부와 정치·

한국병참지구사령부는 실제적인 군수지원 활동을 담당할 한국군수기지국(KBS : Korean Base Section)을 설치했고, 한국기지국은 미 제8군으로부터 군수품 신청을 받아 주일군수사령부에 요구하고 해상수송에 대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미 제8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수지원을 제공했다.[80]

1952년 10월 1일까지 명목상의 부대로서 편제되어 있던 미 육군극동사령부가 일본에서의 점령임무를 맡기 시작하였고, 1953년 1월 1일 개편을 통해 극동군 산하 모든 미 육군에 대한 통제를 맡았다. 이에 주일군수사령부는 1952년 10월 1일 해체되었고 주일군수사령부의 기능은 미 육군극동군사령부에 흡수되었다. 한국병참지구사령부도 미 육군극동군사령부에 예속되었다.[81]

5. 맺음말 :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의 역할과 의의

미군의 한국전 참전결정은 개전 6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의 육·해·공군은 공수 및 해상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거나 전개했다. 육군은 최초 투입된 스미스특수임무부대와 제8군사령부를 포함하여 모두 7차에 거쳐 공수 및 해상을 통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주일 미 육군사단은 미국 전체 11개 사단 중 4개 사단이 참가했다. 그 중 미 제7사단을 제외한 3개 사단 및 1개 연대전투단은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반도에 전개했고, 제7사단은 9월 인천상륙작전시 주일미군사단으로는 가장 늦게 전개되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연락 유지, 주한미대사관과 연락 유지, UNKRA 및 UNCACK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Headquarters USAFFA & Eighth US Army, *Logistics inthe Korean Operations*, pp. 24~29).

80) Headquarters USAFFA & Eighth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11.

81) Headquarters USAFFA & Eighth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p. 35~37.

주일해군은 구축함인 맨스필드함과 해븐함이 주한미국인 호송을 출동한 이래 탄약수송, 동해안에서 남진하는 북한군 제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쥬노함이 파견되면서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주일미해군은 사세보를 기지로하여 지상군 수송작전, 해안포격, 공중강습, 보급 수송 등의 활동을 했다.

주일공군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타츠케가 중심이 되었다. 제5공군사령부는 이곳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한반도의 공군작전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그 후 항공기의 항속거리로 작전시간에 제한을 받게 되자 대구·수영·포항 비행장에 공군기지를 두고 작전을 전개했고, 이후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 내 미군 기지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1952년 6월에는 남한 지역 내에 미군 공군기지가 14개로 증가되어 공군작전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특히 이러한 주일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는 전쟁을 일으키고 서울을 점령하자 낙관론에 빠져 있던 북한에게 견딜 수 없는 치명타로 연결되었다. 김일성이 남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쟁모의를 할 때, 스탈린과 모택동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미군의 개입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전쟁이전 김일성은 모의과정에서 스탈린이 질문했던 미군의 개입가능성에 대해 "미군의 개입은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전쟁을 조기에 끝냄으로써 미군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 미국은 극동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투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미국은 싸움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물러났으며 한반도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모택동은 "미국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런 손바닥만한 땅을 위하여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에 돌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82]

그러나 개전 6일 만에 미 지상군이 참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전개됨으로써 전쟁은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

82) 허남성·이종관, 『韓國戰爭의 眞實』(서울: 國防大學院, 2002), pp. 96, 100.

갔다. 6월 29일 미공군 폭격기 27대에 의한 평양공습에 이어 7월 5일 주일 미지상군이 개입하자, 7월 8일 김일성은 방송연설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무력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무력간섭이 없었더라면, 내란은 끝나고 우리 조국은 벌써 통일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듯 하던 '남조선해방'이 미군의 개입으로 돌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향후 닥쳐올 위기감을 피력했다.[83]

김일성은 남침 계획시, 그리고 남침후 최초 3~4일까지 북한은 미군 개입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했으나, 미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개입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이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7월 1일 전시동원선포와 7월 4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김일성을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7월 5일 김일성은 전선사령부를 편성하고 사령관에 부수상겸 산업상 김책을, 참모장에 민족보위성 총참모장인 강건을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84]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는 맥아더 장군의 정확하면서도 건전한 상황 보고에 이은 지상군 파병건의, 이를 과감히 수용했던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국방 및 안보관계관들의 합리적 정책결정,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가까이 위치한 주일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일미군의 파견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반도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특히 미 본토에서 최초 파견된 미 제2사단이 7월 하순 소집명령을 받고도 전쟁 발발 2개월 후인 8월 29일에야 도착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결정이 아무리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군의 파견은 "미군 개입 이전에 전쟁을 종결"지을 것이라는 김일성의 판단을 입증하는 결과만을 낳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일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는 전쟁기간 동안 미국이 취한 조치 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83) 金國憲, 「6·25초기 북한의 전쟁지도에 관한 試論」, 『軍史』 제23호(1991. 12), p. 196.
84)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권25(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62.

이렇듯 주일미군은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의 절반이 상실되고, 대포를 비롯한 중화기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개되어 한국을 위기로부터 구원했다. 이는 전쟁이전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주일미군의 전개는 개전 초기부터 한미연합전선 형성의 기틀을 마련했고, 전쟁을 통해 한국군을 현대화된 군으로 발전시켰으며, 전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초석이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5. 3. 2,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6·25전쟁,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 한미동맹

KCI

<ABSTRACT>

The Deployment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Japan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Evaluation during the Korean War

Nam, Jeong-ok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about the deployment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Japan moving from Japanese Islands to the Korean Peninsula by air and ship during the Korean War. Additionally this paper would evaluate about its operations activiti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Forces in Japan was the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Japan as part of the US Far East Forces (FEF) during the Korean War.

As of June 1950, the Far East Command (FEC), located in Tokyo, Japan, with main offices in the *Dai Ichi*(第一) Building, had the US Eighth Army commanded by Lieutenant General (three stars) Walton H. Walker, the Far East Naval Forces commanded by Vice Admiral C. Turner Joy, and the Far East Air Forces commanded by Lieutenant General George E. Stratemeyer under Major Subordinate Units. Commander in Chief of the Far East Command was General of the Army (five stars) Douglas MacArthur. The FEC was one among six American Unified Commands establish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JCS).

According to President Harry S. Truman's decision which committed American Ground Forces into the Korean War, MacArthur issued orders for Eighth Army to transfer itself into a combat-ready force, it numbered four

divisions (1st Cavalry, 7th, 24th, and 25th Divisions). Before the U. S. Ground Forces' Intervention, of course, the American Air and Naval Forces were committed to wage against the NKPA (North Korean People's Army).

As a result, the 24th Infantry Division, based on the southernmost Japanese Home Island(Kyushu) that was closet to South Korea, went into battle first. The First American to fight in Korea, the 24th Infantry Division dispatched the First Battalion, the 21st Infantry Regiment (Task Force Smith), to Korea on July 1, 1950, and the remainder of the division soon followed.

The Second U. S. Army Division to be committed to the Korean War, the 25th Infantry Division land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July 10 to 18, 1950.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1950, the 25th Infantry Division was stationed on the Main Japanese Island of Honshu as part of the Occupation Forces there.

The Third U. S. Army Division to be committed to the Korean War, the 1st Cavalry Division (actually an Infantry Division in everything but name), July 18 to 22, 1950, landed at *Pohang* on Korea's Eastern Coast and was immediately committed to battl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1950, the 1st Cavalry Division was stationed in Japan as part of the Occupation Forces there.

The 7th Infantry Division remained behind as the Far East Command reserve when the other Infantry Divisions in Japan were rushed to Korea in July 1950 and was initially drained of many of its personnel as replacement for those divisions. In August 1950, however, it was designated as part of the *Incheon*(仁川) Amphibious Landing Forces.

Besides these U. S. Ground Units, American Air Forces, Naval Forces, and Marines' Units were committed to the Korean War and supported operations of the U. N. Forces.

Like this,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precipitated three years of fighting and caused the casualties of more than about 37,000 Americans

in the fourth largest war in American history. Als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of Commander in Chief of the FEC,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eavy American committed to the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 Korean War provided the mental and material support for establishing the strong security readiness posture of today and also laid the foundation for a strong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Key Words : Korean War, United States Forces in Japan, Korean Peninsula, Deployment, ROK-US Alliance

KCI